

자영업 근로소득의 불평등 요인과 변화

지 은 정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요 약]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자영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만, 자영업내 소득격차도 크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자영업 소득불평등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많지 않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1~4차 자료를 통해, 일반화된 엔트로피지수로 자영업 소득불평등을 측정하고 불평등 요인과 추세를 분해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우리나라 자영업 근로소득 불평등은 매우 높으며, 자영업내 소득양극화가 심각해지고 있었다. 둘째, 자영업 근로소득 불평등의 주된 요인은 고용형태, 교육수준, 연령집단, 사업체규모 그리고 산업으로 나타났다. 셋째, 고용형태에 따른 고용주와 자영자 집단의 상대소득변화효과가 불평등 증가에 기여하는 정도가 가장 크다. 교육수준과 연령집단, 사업체 규모에 따른 불평등 증가는 집단내 불평등(순효과) 증가의 기여도가 가장 크고, 집단구성의 변화효과도 불평등 악화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자영업, 근로소득, 불평등, 일반화된 엔트로피지수, 대수편차평균, 추세, 분해

1. 문제제기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규모는 전체 취업자의 23.5%에 이르러(2010년 기준) 노동시장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크다(반정호, 2011). OECD 회원국들과 비교하더라도 멕시코, 칠레 다음으로 높다(2008년 기준. 김복순, 2011). 더구나 중고령자는 조기퇴직 후 가교일자리로 자영업에 진출하고, 불안정 고용상태에 있다가 퇴출된 사람도 노동시장의 대안으로 자영업을 선택하여(성지미·안주엽, 2004) 앞으로도 자영업이 노동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계속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

문제는 자영업 내의 소득격차가 크다는 점이다. 자영업자의 상당수가 영세한 저소득층으로, 빈곤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반면(금재호, 2008; 김기승·조준모, 2009 재인용), 고용주의 연매출은 평균 3억이다(금재호 외, 2003; 홍성희, 2005 재인용). 또한 월 50만원 미만의 저소득 자영업주가 2004년 이

후 증가하고 있지만, 300만 원 이상 자영업주도 1998년 8.5%에서 2007년에는 21.4%로 높아졌다. 이렇게 자영업주의 소득은 낮지만, 고용주의 소득상승폭이 커서, 자영업 내부에서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금재호, 2003; 2009a). 임금근로자와 비교하더라도 자영업 근로자들 사이의 소득불평등이 상대적으로 높고,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더욱 확대되었다(류재우, 2003; 김기승·조준모, 2009; 금재호, 2009a).

국외 연구를 보아도 자영업 소득은 임금근로자의 근로소득보다 더 분산되어 있으며, 1980년대 이후에는 자영업소득의 불평등이 급증하여 전체 소득불평등을 악화시켰다(Meager et al., 1994; 1996; Curran et al., 1987; Smith, 1986; OECD, 1992; Rubery et al., 1993; Baker, 1993; Jenkins, 1994; Goodman and Webb, 1994; Parker, 1999 재인용). 영국의 소득불평등은 1976~1981년까지는 임금근로자의 소득불평등의 영향이 컸지만, 1981~1986년의 소득불평등 증가는 대부분 자영업의 소득불평등이 높아진데서 비롯되었다(Jenkins, 1995). 그러나 자영업 불평등 악화는 전체 불평등만 악화시키는 게(Parker, 1997) 아니다. 소득불평등 증가는 그 자체로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빈곤의 악순환을 양산한다(Galor and Zeria, 1993; Deininger and Squire, 1998; Aghion et al., 1999; Kimhi, 2010 재인용). 따라서 전체 소득불평등을 이해하고 완화하기 위해서는 자영업 소득분포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Parker, 1997).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연구는 자영업자와 임금근로자라는 상이한 그룹을 한집단으로 묶어 소득불평등을 측정하여 그들 내의 중요한 구조를 간과하였다(Parker, 1999). 또한 자영업자의 특성은 임금근로자와 다르며, 자영업자의 불평등도 임금근로자와는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어왔기(1980년대, Jenkins, 1995) 때문에, 자영업 소득불평등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국내연구 가운데 자영업에 대한 연구는 경제학을 중심으로 자영업 결정요인에 대한 김우영(2000), 금재호·조준모(2000), 류재우(2004), 전병유(2003), 안주엽(2000), 성지미·안주엽(2002) 등의 연구가 있을 뿐이다(최강식 외, 2005). 몇 편의 연구가 자영업 소득 결정요인에 대해 연구하였으나, 그나마도 자영업 소득의 평균과 중위값(median)의 차이, 표준편차, 분위로그 임금격차, 변이계수 혹은 임금근로자 소득분산과의 비교를 통해 이질적(heterogenous)임을 보이는데 그쳤다(류재우, 2003; 최강식 외, 2005 재인용, 최강식 외, 2005; 류재우, 2004; 금재호, 2009b; 성지미, 2011). 그 외 이승렬·최강식(2007), 이승렬(2008; 이승렬, 2009b 재인용), 이승렬(2009b), 최강식 외(2005), 금재호(2009b) 연구는 자영업 소득의 편차가 큰 것을 고려해서 분위회귀모형(quantile regression analysis)으로 자영업 소득결정요인을 추정하였을 뿐, 자영업자의 소득불평등에 초점을 두고 불평등 지수로 분석한 논문은 거의 없다.

더구나 자영업은 빈곤으로부터의 탈출이나 실업의 대안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OECD국가는 자영업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다(성지미, 2011). 우리나라도 자영업이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강력한 원동력으로 인식되어 자영업 육성이 일자리 창출의 한가지 방안으로 고려되고 있다(김기승·조준모, 2006). 이에 노동시장의 구조개선과 고용촉진을 위해 청년층을 위한 벤처창업 을 장려하고(성지미, 2011), 연 4,450억원의 예산(2011년 기준, 소상공인진흥원)을 책정하여 자영업자에게 지원한다. 그러나 자영업이 안정된 일자리로의 디딤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불평등을 악화시킨다면 무분별한 자영업 육성정책은 지양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기초연구도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

구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따라 자영업자의 소득불평등을 분석하여 선행연구의 간극을 채우고, 자영업을 통해 사회구성원의 노동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1) 자영업의 소득불평등

국외 연구 가운데 자영업의 소득불평등을 측정한 논문은 Dolton and Makepeace(1990), Jenkins(1995), Meager et al.(1996; Parker, 1997 재인용), Parker(1997) 등이 있고, Curran et al.(1987), Hakim(1989), Rubery et al.(1993), Goodman and Webb(1994), Meager et al.(1996)은 소득분포에 대한 빈도분석을 실시하여 자영업의 소득불평등이 높음을 보였다. 이들 연구를 보면 자영업의 소득분포가 임금근로자의 소득분포보다 더 크고 자영업자는 소득 하위와 상위에 편중되어 있다(Parker, 1997 재인용). Holz-Eakin et al.(2000), Fairlie(2004)의 연구에서도 임금근로와 비교하면 자영업의 소득편차가 더 크고 소득불평등도가 높으며, 특히 저소득 자영업자의 소득변동이 저소득 임금근로자보다 심한 것으로 관측되었다(성지미, 2011 재인용).

또한 자영업 소득은 양극화되는 경향이 있다. 자영자의 일부는 소득이 거의 없지만, 일부는 막대한 소득을 벌어서 격차가 크다(Hanley, 2000; Róbert and Bukodi, 2004; Heyns, 2005 재인용). 개인특성을 통제해도 자영업자는 소득분포의 양극단에 자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Meager et al., 1996). 자영업자의 소득성과를 측정한 Goodman and Webb(1994)의 분석에서도 자영업자는 2 종류의 국민(two nations)으로 나누어진 것으로 나타나(Parker, 1997 재인용) 이를 지지한다. 더구나 자영업의 소득불평등과 양극화는 더 심해지고 있다. 자영업의 소득불평등이 1980년대 급증하였고(Meager et al.: 1994; 1996; Curran et al., 1987; Smith, 1986; OECD, 1992; Rubery et al., 1993; Baker, 1993; Jenkins, 1994; Goodman and Webb, 1994; Parker, 1999 재인용), 1981년 이후 자영업의 이질성 증가는 전체 소득불평등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Parker, 1997). 또한 소득분포의 상·하위에 분포한 자영업자의 비중이 1979~1991년 사이에 더 높아져(Jenkins, 1994; Parker, 1997 재인용) 자영업 소득의 양극화가 더 악화되었다.

우리나라 노동시장도 자영업 가구의 24.4%는 적자상태이며(금재호, 2009c; 반정호, 2011), 80.2%는 생계유지형 자영업자이다. 이들은 창업 준비 기간이 짧고 전문성이 결여되어 수익성이 낮아 전문성을 갖춘 대형업체와의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소상공인진흥원, 2010년; 반정호, 2011 재인용). 더구나 최근 50대 이상의 자영업 진출비율은 느는데, 이들은 학력수준이 낮고 사업체 규모가 작으며 운수업, 도소매업 등에 종사해서 소득이 정체되거나, 하락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반면 사업서비스업이나 제조업에 종사하는 남성 자영업주는 젊고 사업체 규모가 크며 대졸 이상의 고학력 비율이 높아 소

득증가폭이 크다. 자영업 내에서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금재호, 2009b). 자영업 소득과 매출액을 변이계수(표준편차/평균)로 측정하더라도 자영업주의 소득은 임금근로자에 비해 훨씬 크고, 이질성이 1999년 이래 계속 증가하였다(최강식 외, 2005). 자영업 소득의 분산은 임금근로자보다 두 배 크고, 표준편차와 분위별 소득격차, 혹은 분위로그 임금격차로 측정하더라도 자영업자의 소득 불균등도가 높다. 이는 주로 하위 소득자의 소득분배가 더 불균등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류재우, 2003). 자영업자의 개인 특성에 있어서도 집단내 편차가 커서, 자영업주는 임금근로자에 비해 매우 이질적인 사람들로 구성되었다(류재우, 2004; 최강식 외, 2005 재인용). 자영업 소득(혹은 매출)의 평균과 중위값을 봐도 평균과 중위값의 차이가 크고, 분포가 편중되어(금재호, 2009b; 성지미, 2011), 불균등하게 분배된 것을 알 수 있다.

2) 자영업의 소득불평등 요인

(1) 교육수준과 자영업 소득불평등

인적자본 특히, 교육수준이 낮고 훈련이 부족한 사람은 금전적 자본이나 전문적 조연과 관리능력을 얻기 어렵다. 반면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사업에 금전적으로 투자할 능력과 관리능력이 커서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Bates, 1989; Boyd, 1991 재인용).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전문성 및 기술력이 높아서 수익이나 자영업 성과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도 있다(Heck et al., 1993; 홍성희, 2005 재인용). Chiswick(1974), Hirsch(1978), Plotnick(1982), Sakamoto(1987)의 연구에서도 교육 불평등이 증가하면, 소득불평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교육이 불평등의 중요한 기제이러는데(Sakamoto, 1988 재인용; Becker, 1975; Boyd, 1991 재인용) 이견이 없다.

우리나라도 자영업 소득(매출)은 교육수준에 따라 차이가 크다. 성지미·안주엽(2003), Heck et al.(1993; 홍성희, 2005 재인용), 금재호(2003; 2009b), 이승렬(2009b), 성지미(2011)의 연구 모두 고학력일수록 자영업주의 소득이나 매출이 높게 나타났다. 고졸 자영업자의 소득은 대졸자의 69.3%, 중졸자는 51.8%이고 초등졸 이하는 41.0%에 지나지 않은 123.5만원에 그치고 있다. 특히 2007년에는 대졸자 소득의 26.7%에 불과했다(금재호, 2009b). 금재호(2003)의 연구를 보아도 무학 자영업자는 평균 근로소득이 38.8만원인 반면, 대졸 이상은 286.8만원으로 약 250만 원 가량 차이가 난다. 회귀분석결과 역시 교육연수가 자영업 소득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특히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교육의 한계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최강식 외, 2005). 그러나 교육수준이 자영업 소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홍성희, 2005), 교육 불평등은 소득불평등과 부적인 관계를 보이기도 한다(Sakamoto, 1988). 또한 교육연수와 자영업 소득 관계는 U자형이 관측되거나(Boyd, 1991),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노동소득이 증가하지만, 교육수준에 따라 영향력이 다르게 나타나기도 하였다(Kimhi, 2010).

(2) 산업과 자영업 소득불평등

집단간 불평등 및 연도별 불평등 변화를 분해한 결과를 보면, 직업이 임금근로 뿐 아니라, 자영업의

소득불평등을 설명하는 가장 강력한 요인이다(Parker, 1999). 특히, 산업구조는 소득불평등과 관련되어 있다.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에서는 소득불평등이 낮지만(Hale and Main, 1977; Kaworth et al., 1982; Sattinger, 1980; Soroka, 1984; Sakamoto, 1988 재인용), 서비스산업은 소수의 고임금직업과 다수의 저임금직종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소득불평등도 증가하였다(Lawrence, 1984; Reiff, 1986; Gruber and Wilson, 1987; Levy and Murnane, 1992 재인용; Jenkins, 1995). 우리나라 자영업주의 대부분도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어(74.5%, 2007년 기준, 금재호, 2009a) 소득불평등이 크다. 생산성이 높은 생산자 서비스보다는, 고용비중은 높지만 부가가치가 낮아서 생산성이 낮은 소비자서비스와 유통서비스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김주훈 외, 2007) 때문일 것이다. 다수의 자영업주가 종사하는 운수업, 부동산 및 임대업,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의 매출은 4000만 원대에 머물고 있고, 도소매 판매업과 음식숙박업은 영세자영업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다. 반면 제조업, 도·소매 판매업 및 사업서비스업의 연평균 매출액은 1억 1,095만원을 넘는다. 소득도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금재호, 2009b). 매출액이 동일하더라도 도소매, 숙박 및 음식업의 순수입은 다른 산업에 비해 적으며, 수익성이 낮다(김순미·홍성희, 2000; 홍성희, 2005 재인용). 반면 사업서비스업과 제조업, 건설업 자영업자의 소득은 개인서비스업에 비해 1.74배 이상 높아서, 산업에 따른 자영업 소득 차이가 상당히 큰 것을 알 수 있다(금재호, 2009b).

(3) 고용형태와 자영업 소득불평등

같은 자영업자라도 고용주와 자영업자의 소득격차가 크다. 월 50만원 미만의 저소득 자영업주는 2004년 이후 증가하고 있고, 실질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자영업주도 외환위기 이후부터 2003년까지 하락하다가, 그 이후 증가세로 반전되었다. 반면 300만 원 이상의 자영업주 비중은 1998년 8.5%에서 2007년은 21.4%로 높아졌다(금재호, 2009b). 금재호 외(2003)의 연구를 보더라도 비임금 근로자의 연평균 매출액은 1억 617만원이지만, 이 가운데 자영업자의 연평균 매출액은 2,618만원에 불과하다. 반면 고용주는 10배 수준인 2억 9,371만원에 이른다. 또한 고용주의 소득증가가 자영업자보다 4배 높다. 비임금 근로자의 소득증가는 주로 고용주의 소득 상승에 의해 주도되고 있으며, 자영업 내부에서 소득격차가 심화되고 있음을 말해준다(홍성희, 2005 재인용).

(4) 사업체 규모와 자영업 소득불평등

사업체 규모에 따라서도 자영업자의 소득격차가 크다. 종업원 수가 상대적으로 많을수록 자영업 소득이 낮지만(이승렬, 2009b), 대부분의 연구는 사업체 규모와 자영업 소득은 정의 관계가 있거나, 종업원 수가 많을수록 자영업 소득이 높게 나타났다. 자영업자의 소득은 고용주의 절반수준인 52.1%인데, 피용인이 10명 이상인 고용주의 소득은 자영업자보다 2.79배 높다. 이는 자영업주 사이에 소득양극화가 심각한 수준임을 암시한다. 매출액을 보더라도 종업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매출액보다 종업원 1~4명의 고용주 매출이 평균 3.29배 많고, 5~9인의 고용주는 7.67배, 그리고 10인 이상은 10.3배 많다(2001~2007년). 사업체 규모가 큰 자영업은 더욱 번성하고, 규모가 작은 영세자영업은 더 위축되어 존폐의 위기에 처할 위험이 크다(금재호, 2009b).

(5) 사업기간과 자영업 소득불평등

교육 외에도 노동시장경험은 인적자본의 중요한 요인이며 소득불평등의 주요 기제이다(Sakamoto, 1988). 기업가의 개인적 특성보다 경영년수가 자영업 소득 창출에 더 영향력이 있으며(Rowe, 1993), 자영업을 운영한 경험이 있을 때 노하우 축적을 통해 자영업소득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성지미·안주엽, 2003; 홍성희, 2005 재인용). 우리나라도 사업기간이 길수록 자영업 소득이 유의하게 높아진다(최강식 외, 2005; 홍성희, 2005). 자영업 지속년수가 1년 증가하면 소득이 약 1.5% 증가하고(금재호 외, 2003; 홍성희, 2005 재인용), 이전 자영업 경험은 현재의 시간당 자영업 소득에 정적인 영향을 미쳐, 자영업 지속기간의 소득증가효과가 연간 1.2%로 나타났다(성지미·안주엽, 2003; 홍성희, 2005 재인용). 그러나 사업기간과 자영업 소득의 곡선관계를 보인 연구도 많다. 현재 일자리에서의 근속기간이 길수록 자영업 근로소득이 높지만, 특정 시점 이후에는 감소하는 역 U자형이 나타났다(Boyd, 1991; 최강식·정진화, 2007; 금재호, 2009b; 성지미, 2011). 혹은 사업기간이 자영업 소득에 미치는 효과는 모두 정(+)이지만,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사업기간의 소득효과는 감소하였다. 사업기간이 길수록 소득편차가 줄어드는 것으로(금재호, 2009b) 볼 수 있다.

(6) 연령과 자영업 소득불평등

젊은 층은 평균보다 소득이 높은 반면, 고령층은 평균보다 소득이 낮고, 인구고령화, 저출산으로 고령자계층의 비율이 높아져 소득불평등이 커질 수 있다(Jenkins, 1995). 자영업자의 연령별 고용비중 추이를 보더라도, 20대 이하가 9.9%, 30대가 15.3%이나, 60대가 46.4%이고, 50대도 33.6%에 이르러 50대 이상이 전체 자영업자의 대부분을(81.4%) 차지한다(2010년 기준, 김복순, 2011). 외국에서도 가구주 연령이 48세 이하인 기업가소득이 48세 이상인 기업가보다 높게 나타났다(Kimhi, 2010). 우리나라는 자영업자의 매출액이 40대까지 증가하다가 50대 이후 감소하며, 특히 60대 이상 고령자의 매출액과 소득(월평균 138만원) 모두 큰 폭으로 하락하여, 40대의 59.9%에 불과하다(금재호, 2009b). 50대 연령층의 자영업자는 5인 미만 사업체를 운영하는 비율이 55.7%(2011년 상반기)에 이르고, 50대와 60세 이상 고령층은 대부분 생계형 자영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기(김복순, 2011) 때문일 것이다. 즉, 자영업 소득은 연령이 많을수록 높아지다가, 일정 연령 이후 감소하는 역 U자형으로 볼 수 있다(홍성희, 2005; 금재호, 2009b, 이승렬, 2009b; 성지미, 2011). 그러나 정점이 되는 연령은 30대(이승렬, 2009b)나 32.9세(금재호, 2009b), 혹은 42세(자영업 경험자)나 47세(자영업 미경험자. 남자. 성지미, 2011)로 연구마다 다르다.

(7) 성별과 자영업 소득불평등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근로소득 격차는 과거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있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 여전히 큰 폭으로 남아있다. 자영업 소득 역시 인적자본 특성을 통제해도, 임금근로자에 비해 자영업자의 성별 소득격차가 더 크다(Moore, 1983; Hundley, 2000; 최강식·정진화, 2007 재인용). 남성 자영업자의 순수입이 여성 자영업자에 비해 높을 뿐 아니라, 총 매출액에서 순수입이 차지하는 비율

도 크다(김순미·홍성희, 2000; Rowe et al., 1993; Heck et al., 1993; 정순희, 2002; 홍성희, 2005 재인용). 금재호(2009b)의 연구에서도 이러한 자영업 소득의 성별격차는 지속적으로 관측되어, 1998~2007년 여성 자영업주의 소득은 남성 자영업주 소득의 62.0%였고, 성지미(2011)의 연구에서도 6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은 성별격차가 더 커서 여성 자영업주의 매출액은 남성의 40.6%일 뿐이다(금재호, 2009b). 여성 자영업자는 주로 도소매업, 수리업에 종사하지만, 남성은 상대적으로 매출액과 수익성이 높은 건설업, 운수, 통신, 금융업 등 다양한 업종에 분포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김순미·홍성희, 2000; 홍성희, 2005 재인용). 더구나 최근 여성의 자영업 참여가 증가하면서, 자영업의 이질성이 커지고, 소득불평등이 높아진 것으로 진단된다(Parker, 1997).

(8) 가구원 및 자녀수/결혼상태와 자영업 소득불평등

사업주는 직간접적으로 배우자와 자녀들의 도움을 받는다. 가족구성원은 무급가족종사자로 일하기도 하고, 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돕는다(Daly, 1982; Xenos et al., 1987). 가족은 자영업자의 핵심 네트워크이며, 소규모 사업을 성장시키는 결정요인이다(Fratoe, 1988). 이 경우 가족관계는 사업가에게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의 한 형태가 된다(Coleman, 1990; Boyd, 1991 재인용). 따라서 가족구조의 차이가 사업소득의 차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Boyd, 1991). 그러나 자녀수가 가족의 순수입 대 총매출의 비율(김순미·홍성희, 2000; 홍성희, 2005 재인용) 혹은 자영업 소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홍성희, 2005), 성인이 3명 이하인 가구가 그 이상인 기업이 가구보다 소득이 더 높게 나타나기도 하였다(Kimhi, 2010).

그 외에도 배우자가 있는 기혼자의 소득이 미혼이나 별거·이혼·사별 상태에 있는 자영업주의 소득보다 많고(금재호, 2009b; Kimhi, 2010), 남성만 보더라도 기혼남성에 비해 미혼남성의 자영업 소득이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성지미, 2011). 한편, 소득불평등과 나쁜 건강상태와의 관계를 보인 연구도 많다(Kawachi and Kennedy, 1997; Wilkinson, 1996; Asafu-Adjaye, 2004; Heylms, 2005 재인용). 우리나라도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자영업자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이승렬, 2009b).

본 연구도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교육수준, 산업, 고용형태, 사업체 규모, 연령, 성별, 가구원수, 혼인 상태, 건강상태에 따라 자영업 소득불평등이 클 것으로 예측한다.

3. 분석방법

1) 연구자료 및 분석대상

분석 자료는 한국복지패널(Korea Welfare Panel Study) 1~4차이다. 한국복지패널의 소득은 통계청의 가계조사와 유사하여 소득하향신고 문제가 비교적 적어 소득불평등의 과소/과대 추정문제를 줄일 수 있다. 다만 복지패널은 저소득층이 과대 표집되어, 분석결과의 일반화를 위해 각 연도 횡단면

모수가중치(개인가중치)를 부여하였다. 자료는 개인자료와 가구자료를 병합(merge)한 것으로, 분석단위는 개인이다.

분석대상자는 무급가족종사자를 제외한 자영업자(고용주와 자영자)이다. 『경제활동인구조사』(통계청)에 따르면,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 가운데 자영자는 “자기 혼자 또는 무급가족종사자와 함께 자기 책임 하에 독립적인 형태로 전문적인 업을 수행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을 말하며, 고용주는 “유급종업원을 한 사람 이상 두고 기업을 경영하거나, 농장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이와 같은 정의에 따라 『경제활동인구조사』는 고용주와 자영자를 “자영업주”라 칭한다(이승렬, 2009a). 본 연구도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정의를 따랐다. 최종분석대상은 농어업광업을 제외한 15세 이상의 자영업자로, 1차는 1,113명, 2차는 1,049명, 3차는 1,051명, 4차는 933명이다.

2) 분석방법

1) 소득불평등 측정

소득불평등을 측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이며, 측정방법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다(Schwartz and Winship, 1979; Sakamoto, 1988 재인용). 이 가운데 지니계수(Gini coefficient)는 실증분석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불평등 지수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Mookherjee and Shorrocks, 1982).

$$\begin{aligned}
 G &= \frac{1}{2n^2\mu} \sum_i \sum_j |y_i - y_j| && \dots\dots\dots \textcircled{1} \\
 &= \frac{1}{2n^2\mu} \sum_k \left(\sum_{i \in N_k} \sum_{j \in N_k} |y_i - y_j| + \sum_{i \in N_k} \sum_{j \notin N_k} |y_i - y_j| \right) \\
 &= \sum_k \left(\frac{n_k}{n} \right)^2 \frac{\mu_k}{\mu} G^k + \frac{1}{2n^2\mu} \sum_k \sum_{i \in N_k} \sum_{j \notin N_k} |y_i - y_j|
 \end{aligned}$$

y_i : 개인(혹은 가구) i 의 소득, μ : 평균소득,

n_k : k 집단의 구성원, μ_k : k 집단의 평균소득, G_k : k 집단의 지니계수

지니계수는 불평등지수가 가져야 할 5가지 성질 즉, 이전의 원칙(Pigou-Dalton Transfer Principle), 소득의 비례적 가산원칙(Principle of Proportionate Addition to Income), 소득의 동액가산원칙(Principle of Equal Addition to Income), 소득인원의 비례적 가산원칙(Principle of Proportionate Addition to Person), 익명성의 원칙(Principle of Anonymity), 가법성의 원칙(Principle of Decomposition¹⁾. 윤기중, 1997; Litchfield, 1999; 여유진 외, 2005 재인용)의 대부분의 공리를 만족하

1) 이전의 원칙은 고소득자의 소득 가운데 일부를 저소득자에게 이전하면 불평등도가 작아져야 한다는

지만, 소득의 하위 벡터들이 중복될 경우 가법성 공리를 만족하지 않는다. Mahalanobis(1967), Rao(1969), Pyatt(1976) 등의 방법으로 분해할 수도 있지만, 집단간 중복정도나 상호작용 효과에 따라 달라지고(Mookherjee and Shorrocks, 1982), 총불평등과 요인 항목들의 불평등 합계가 직관적 혹은 수학적으로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정진호·최강식, 2001; 여유진 외, 2005; Jenkins, 1995). 나아가 지니계수는 극빈층의 소득점유율 변화에 별로 반응하지 않고, 중산층의 소득분배의 변화를 잘 묘사한다. 따라서 정부가 소득분배 개선을 목표로 정책을 수립하고자 할 때, 지니계수만으로 측정하면 가난한 계층의 소득점유율이 낮아졌는데도 소득불평등이 개선된 것으로 결론 내릴 수 있다. 실제 지니계수는 최빈층의 소득점유율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고(유항근, 2004), 하부집단의 소득불평등이 증가해도 총 불평등이 감소한 것으로(Jenkins, 1995) 나타나기도 하였다.

그 외에는 앳킨슨(Atkinson)과 일반화된 엔트로피(Generalized Entropy, GE) 계열의 불평등지수(가²⁾) 많이 사용된다. 이 중 일반화된 엔트로피지수는 불평등지수가 가져야 할 5가지 성질을 모두 만족하며(Cowell, 1995; 여유진 외, 2005 재인용; 정진호·최강식, 2001), 하부집단의 소득이 중복되는 것에 상관없이 분해할 수 있다(Mookherjee and Shorrocks, 1982). 즉, GE는 모집단을 구성하는 하부그룹별 불평등지수 분해와 소득원별 불평등지수의 분해가 모두 용이하여, 실증분석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다(Litchfield, 1999; Chakravaty, 1999; 안동환, 2004 재인용; Cowell, 1995; 여유진 외, 2005 재인용; 정진호·최강식, 2001; Shorrocks, 1984; Jenkins, 1995 재인용). Shorrocks(1980)가 제안한 일반화된 엔트로피 공식은 다음과 같다(Mookherjee and Shorrocks, 1982 재인용).

$$I_0 = \frac{1}{n} \sum_i \log\left(\frac{\mu}{y_i}\right) = \text{Mean Logarithmic Deviation} \quad \dots\dots\dots \textcircled{2}$$

$$I_1 = \frac{1}{n} \sum_i \frac{y_i}{\mu} \log \frac{y_i}{\mu} = \text{Theil coefficient} \quad \dots\dots\dots \textcircled{3}$$

$$I_2 = \frac{1}{2n\mu^2} \sum_i (y_i - \mu)^2 = \frac{1}{2} CV^2 \quad \dots\dots\dots \textcircled{4}$$

I_0 는 대수편차평균(Mean Logarithmic Deviation, MLD), I_1 은 타일지수, I_2 는 변이계수자승(Squared Coefficient Variation: SCV)의 절반이다(Mookherjee and Shorrocks, 1982). GE값의 최소치는 0으로, 모든 소득이 동일하여 소득분배가 가장 균등하게 이루어진 상태이다. 최대치는 ∞ 로서 수치가 높을수록 소득분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뜻한다. 한편 대수편차평균(I_0)은 고소득자 보다

것이다. 가법성 원칙은 총 불평등은 하부집단의 불평등지수와 일관성 있는 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안동환, 2004; 여유진 외, 2005). 그 외의 원칙 및 더 자세한 설명은 안동환(2004), 여유진 외(2005)를 참고하기 바란다.

2) 타일(Theil, 1967)의 엔트로피지수를 좀 더 보편적인 공식으로 바꾼 것이 일반화된 엔트로피지수이다(여유진 외, 2005).

는 소득분포의 하위에 속한 사람들의 소득차이에 더 반응하고, 타일 계수(I_1)는 모든 소득분포에 고르게 비중이 주어지며, 변이계수자승(I_2)은 고소득 계층의 소득변화에 더 큰 비중이 주어진다(정진호·최강식, 2001; 여유진 외, 2005; Jenkins, 1995). 본 연구는 GE계열 가운데 I_0 을 사용하였다. I_2 가 불평등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I_0, I_1, I_2 로 측정된 불평등지수가 매우 비슷한 가운데(Mookherjee and Shorrocks, 1982), 대수편차평균이 가장 바람직한 분해 속성을 지녔기(Jenkins, 1995) 때문이다. 또한 자영업소득은 저소득층의 비율이 높아서, 저소득차이에 더 큰 비중을 두는 I_0 으로 불평등을 측정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지니계수도 한계는 있지만 보편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제시하였다. 그리고 불평등 지수만으로는 어떤 계층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약화되었는지 알 수 없다(정진호·최강식, 2001). 이에 소득분위수배율(percentiles)과 소득분위별 소득 점유율도 살펴보았다. GE 계열로 소득불평등을 분석한 논문은 정진호·최강식(2001), 안동환(2004), 여유진 외(2005), 유항근(2004), Mookherjee and Shorrocks(1982), Jenkins(1995), Parker(1999), Kimhi(2010) 등을 들 수 있다.

(2) 집단별 요인분해(sub-group decomposition)

모집단을 인구학적 속성을 기준으로 세분하여 전체 불평등도를 집단간(between) 불평등도와 집단내(within) 불평등도로 분해하면, 전체 불평등이 집단내 불평등에 기인하는 정도와 집단간 불평등에 기인하는 정도를 알 수 있다. 집단간 불평등이 클수록, 집단특성의 설명력이 큰 것으로 볼 수 있다(Shorrocks, 1980; Cowell, 1980; Parker, 1999 재인용). 소득불평등에 대한 요인분석은 소득불평등의 원인 연구에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으로(정진호·최강식, 2001), 집단별 불평등지수 분해는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된다(Parker, 1999). 일반적으로 성, 근로형태(파트타임근로/상용근로), 연령, 산업, 교육, 직종은 소득불평등의 주요 요인이며(Meager et al., 1996; Parker, 1999 재인용), 자영업의 소득불평등도 자영업자의 이질성에서 비롯된다(Falter, 1997; 성지미, 2011 재인용). 따라서 자영업 소득불평등을 집단별로 분해하여 정책적으로 주된 요인에 우선순위를 두고 접근할 필요가 있어서 본 연구도 집단별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전체 집단이 배타적 속성을 지닌 k 개의 집단으로 구분될 때, 대수편차평균(②식)을 분해하면 다음과 같다(Mookherjee and Shorrocks, 1982).

$$I_o = \sum_k \nu_k I_o^k + \sum_k \nu_k \log\left(\frac{1}{\lambda_k}\right) \dots\dots\dots \textcircled{5}$$

I_o^k : k 집단의 소득불평등도, ν_k : k 집단이 모집단에서 차지하는 비율($\equiv n_k/n$)

λ_k : k 집단 평균소득의 모집단 평균소득에 대한 비율($\equiv \mu_k/\mu$)

⑤식의 첫 번째 항은 집단내 불평등으로 하부집단 불평등의 합에 가중치를 부여한 것이고, 두 번째 항은 집단간 불평등으로 하부집단의 평균소득의 차이를 나타낸다. 즉, 총 불평등을 집단간/집단내 불평등으로 분해하는 것은 하부 집단의 평균 소득(subgroup mean incomes), 인구비율(population shares), 그리고 불평등 지수(inequality values)를 이용하여 분해하는 것이다(Mookherjee and Shorrocks, 1982).

(3) 불평등 추세분해(decomposition of the trend in inequality)

불평등 변화를 분해할 때도 I_2 보다는 I_o , 즉 대수편차평균(MLD)이 더 유용하다(Jenkins, 1995). 이에 ⑤식을 불평등 변화추이로 분해하면, 다음과 같다.

$$\begin{aligned} \Delta I_o &= I_o(t+1) - I_o(t) = \Delta \left(\sum_k \nu_k I_o^k \right) - \Delta \left(\sum_k \nu_k \log \lambda_k \right) \\ &= \sum_k \bar{\nu}_k \Delta I_o^k + \sum_k \bar{I}_o^k \Delta \nu_k - \sum_k \overline{\log \lambda_k} \Delta \nu_k - \sum_k \bar{\nu}_k \Delta \log \lambda_k \\ &\approx \sum_k \bar{\nu}_k \Delta I_o^k + \sum_k \bar{I}_o^k \Delta \nu_k + \sum_k (\bar{\lambda}_k - \overline{\log \lambda_k}) \Delta \nu_k + \sum_k (\bar{\theta}_k - \bar{\nu}_k) \Delta \log \mu_k \\ &\quad [A \text{ 항}] \quad [B \text{ 항}] \quad [C \text{ 항}] \quad [D \text{ 항}] \end{aligned}$$

$$\Delta: t \text{시점에서 } t+1 \text{시점 사이 요인의 변화, } \bar{\nu}_k: \frac{1}{2} [\nu_k(t) + \nu_k(t+1)]$$

$$\bar{I}_o^k: \frac{1}{2} [I_o^k(t) + I_o^k(t+1)], \quad \overline{\log \lambda_k}: \frac{1}{2} [\log \lambda_k(t) + \log \lambda_k(t+1)]$$

$$\theta_k: k \text{집단 전체 소득의 모집단 전체소득에 대한 비율}(= \nu_k \lambda_k)$$

위의 식에서 좌변은 모집단 전체의 불평등도 변화이고, 우변 A항은 집단내 불평등의 변화 즉, 불평등도 변화의 순(pure)효과이다. B항과 C항은 집단구성 변화로 인한 효과 즉 집단내외 집단간 인구비율의 변화효과를 뜻하며, D항은 하부집단 소득의 상대적 변화효과(혹은 집단간 상대소득 변화 효과)를 나타낸다. 전체 불평등을 집단간 불평등과 집단내 불평등으로 분해하는 것처럼, 불평등 추세 분해도 하부집단 평균소득의 상대적 변화, 하부 인구집단비율의 변화, 하부집단 불평등지수의 변화효과 3가지를 통해 측정한다. 따라서 총 소득불평등의 변화는 이 3가지 요소의 기여(contribution)를 합한 것과 같다(Mookherjee and Shorrocks, 1982). 만약 하부집단 구성의 변화가 불평등 변화에 기여한 정도가 크다면, B항과 C항의 상대적 비율이 클 것이고, 집단구성원의 상대소득의 변화가 총 불평등 변화에 기여한 바가 크면 D항의 비율이 높을 것이다. 반면, A항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크다면, 집단구성의 변화가 총 불평등 변화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순수한 불평등의 변화로 볼 수 있다

(Jenkins, 1995).

3) 변수의 조작적 정의

(1) 자영업 소득

임금소득의 불평등은 높을 뿐 아니라, 소득불평등 증가의 60%는 근로자의 소득불평등의 증가에 기인한다(Atkinson, 1993; Jenkins, 1995 재인용). 그래서 임금불평등의 증가가 소득불평등의 증가를 설명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Jenkins, 1995) 간주된다. 본 연구도 근로소득을 사용하였다. 또한 매출이 아니라 소득으로 측정하였다. 임금근로자와는 달리 자영업소득은 재료비 등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매출액으로 측정하면 자영업자의 경제상황을 과대평가할 수 있다. 또한 영세자영업자는 연간 매출액 4,800만원을 기준으로 구분하지만, 매출액보다는 월소득이나 수입을 기준으로 영세자영업자를 확인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이승렬, 2009a³⁾). 자영업 근로소득은 조사 직전 연도의 ‘연간 고용주·자영자 순소득(개인)’이다. 순소득은 연간 매출액에서 연간 총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뜻한다. 그리고 자영업 소득은 2008년을 기준으로(2008=100) 통계청(KOSIS)의 소비자물가조사를 토대로 조정하였다.

(2) 자영업 소득불평등의 요인

자영업 소득불평등 요인은 <표 1>과 같다. 이 가운데 노동시장경험은 Sakamoto(1988)을 따라 주로 근로자가 노동시장에서 일을 한 연(year)수로 측정하였다. 4차의 경우 “2008년 12월 31일 당시 재직 중인 직장에서 사업을 시작한 시기는 언제입니까”의 설문문항을 통해 조사된 ‘사업시작 년도와 월(㉞)’부터 ‘2008년 12월(㉝)’까지의 기간으로 측정하여(㉝-㉞, 개월수) 연수로 바꾸었다. 그 외 1~3차 사업기간 역시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였다. 서비스산업 분류는 김주훈 외(2007)를 따랐다.

3) 연간 매출액 4,800만원을 기준으로 정책 대상 집단을 설정하면 자영업자의 절반 정도가 정책 대상에서 제외될 우려가 있다(조영철, 2006; 이승렬, 2009a 재인용).

<표 1> 자영업 소득불평등 요인

구 분		범 주		
인적자본 · 직업특성	교육수준	무학·초등학교/중·고등학교/전문대·4년제 대학/석·박사		
		2차 산업	제조업, 전기가스·수도, 건설업	
	산업	생산자서비스	금융·보험업, 사업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서비스	유통서비스	도소매, 운수업
		산업	소비자서비스	음식숙박업,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기타 공공·수리·개인서비스업
		사회서비스	교육·사회복지서비스업	
	고용형태	고용주/자영자		
사업체 규모	1~4명/5인 이상			
사업기간	5년 미만/5~10년/10~15년/15~20년/20~25년/25년 이상			
개인특성	연령	29세 이하/30대/40대/50대/60대/71세 이상		
	성별	남/녀		
	건강상태	(아주)나쁨/보통/(아주) 좋음		
가족특성	결혼상태	미혼/이혼·별거·사별/유배우자		
	가구원수	1~2인/3~5인/6인 이상		

4. 분석결과

1) 분석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한국복지패널 근로자(무급가족종사자 제외)가운데 자영업자의 비율은 평균 17.9%이며(2005~2008년4),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5년 이후 자영업의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2008년 세계 경제위기로 인해 우리나라 고용사정과 내수경기가 악화되어 자영업자의 휴폐업이 늘었기(김복순, 2011) 때문일 것이다.

<표 2> 임금근로자/자영업자 비율(2005~2008년)

구 분	2005	2006	2007	2008
임금근로자	81.6%	82.0%	82.0%	82.9%
자영업자	18.4%	18.0%	18.0%	17.1%
전체	100.0%	100.0%	100.0%	100.0%

주) 경제활동은 전년도 시점으로 조사되므로, 1차(2006년)는 2005년임, 다른 년도 역시 마찬가지임. 각 연도 횡단면 모수가중치(개인가중치)를 사용한 결과임.

4) 농어업을 포함하면 자영업 비율은 평균 22.3%(가중치 부여)이다.

자영업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3>과 같다. 임금근로자 가운데 고졸 이하의 비율이 평균 52.05%인데, 자영업자 가운데 저학력자의 비중은 평균 65.5%로 높다. 임금근로자로 취직하지 못한 저학력자들과 젊은 층보다 상대적으로 교육수준이 낮은 조기퇴직자가 자영업 노동시장에 내몰린 것으로 보인다. 반면, 대졸은 평균 33.9%이고, 대학원 학력은 2.75%에 불과하다. 학력별 자영업분포는 고졸이하의 저학력이거나 대학원졸 이상의 고학력으로 ‘쌍봉형태’를 보인다는 김기승·조준모(2009)의 연구결과와 다르다. 추세를 보면, 저학력자의 비율은 다소 감소하지만(66→65.6%), 대학교 이상 학력자의 비중은 33.9%에서 35.3%로 높아진다. 산업구성은 서비스산업이 평균 82.3%로 매우 높고 증가추세를 보인다(81.2%→82.1%). 서비스산업별로 보면, 고부가가치인 생산자 서비스업과 사업서비스업은 주변적인 역할에 그치고 있지만(각각 평균 8.1%, 8.4%), 생산성이 낮은 유통서비스업은 평균 38.8%, 소비자서비스업은 27.0%로, 총 65.8%의 비중을 차지한다. 우리나라는 생산성이 높은 생산자서비스의 비중이 낮은 반면, 생산성이 낮은 유통서비스와 소비자서비스업의 비중이 높다는 김주훈 외(2007)와 금재호(2009a)의 결과와 유사하다. 또한 생산자서비스업 비중은 감소하지만(9.8%→5.4%), 소비자서비스업 비율은 커지고 있다(25.2%→31.1%). 이러한 현상은 외환위기 직후 구조조정으로 일자리에서 밀려난 이들이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등 생계형 영세 자영업에 몰렸던 것과 유사하다(동아일보, 2011.11.17). 유통서비스와 소비자서비스업의 진입장벽이 낮아서 한계노동자들에게 고용대안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고용형태는 자영업자 절대적으로 많다(평균 74.5%). 그러나 79.6%에서 73.2%로 감소하고, 고용주의 비중은 20.4%에서 26.8%로 증가하였다. 사업체 규모를 보면, 1~4인 소규모의 자영업 비율이 평균 92.4%로 절대다수이고, 5인 이상 사업장 비율은 평균 7.6%에 불과하다. 고용주 비율이 평균 25.5%인 것을 볼 때, 고용주의 70%는 2~3인의 종업원을 둔 소규모 사업체인 것을 알 수 있다. 사업기간을 보면, 5년 이하 비율이 평균 42.9%이다. 최근 창업한 신규자영업자 비율이 가장 높다. 반면 10년 이상 자영업을 지속한 비율은 평균 30.3%이고, 20년 이상 자영업에 종사한 비율은 평균 10.25%에 불과하여 사업기간이 길수록 비율이 감소한다. 사업체 생존기간이 길어질수록 감소추세를 보이고, 자영업자 과반수이상의 사업체 생존기간이 10년 미만으로 나타났던 금재호(2003)의 결과와 유사하다. 연령별 구성을 보면, 자영업자 가운데 40대도 평균 35.9%이지만 50대 이상이 평균 37.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더구나 비율이 더 높아져 2008년에는 자영업자 10명 가운데 약 4명이 50대 이상의 중고령자이다. 노동시장에서 전체 자영업의 비중이 감소하고(<표 2> 참고) 40대 비중도 낮아졌지만(36.7%→35.3%), 50대 이상은 늘고 있다. 2003년 신용대란 이후 40대 자영업자는 감소한 반면, 50대와 60대 이상 자영업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금재호(2009a)의 결과와 유사하다. 자영업자 가운데 남성의 비율은 평균 72.4%, 여성은 평균 27.6%로 남성자영업자가 약 6배 많다.

<표 3> 분석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특 성		2005	2006	2007	2008		
인적자본·직 업특성	교육수준	초등학교 이하	9.6%	12.0%	12.4%	9.0%	
		중·고졸	56.4%	54.2%	52.7%	55.6%	
		전문대·4년제	31.1%	30.8%	32.5%	32.7%	
		석·박사	2.8%	3.0%	2.4%	2.8%	
	산업	제조업	10.0%	9.2%	9.5%	8.9%	
		건설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8.6%	8.1%	7.5%	9.1%	
		도소매	27.5%	28.2%	27.6%	23.5%	
		운수업	12.5%	12.5%	11.4%	11.9%	
		음식숙박업	11.0%	10.5%	8.8%	9.6%	
		부동산업, 임대업	3.9%	3.6%	3.6%	3.3%	
		금융 및 보험업, 사업서비스업	5.9%	4.7%	5.3%	2.1%	
		교육·사회복지서비스업	6.2%	7.4%	9.8%	10.2%	
		오락·문화 등 서비스업	4.1%	3.9%	4.1%	6.4%	
	기타 개인서비스업	10.2%	12.1%	12.3%	15.1%		
	고용형태	자영자	79.6%	73.1%	72.0%	73.2%	
		고용주	20.4%	26.9%	28.0%	26.8%	
	사업체 규모	1~4인	91.8%	92.5%	93.1%	92.1%	
		5인 이상	8.2%	7.4%	6.9%	7.9%	
		결측치	—	0.2%	—	—	
	사업기간	5년 미만	41.5%	38.3%	46.7%	44.9%	
		5~10년 미만	25.0%	22.9%	21.6%	24.0%	
		10년~15년 미만	14.4%	13.6%	12.9%	13.8%	
		15~20년 미만	5.8%	5.6%	6.3%	7.9%	
		20~25년 미만	6.8%	6.0%	4.8%	3.4%	
		25년 이상	4.8%	4.7%	4.5%	6.0%	
		결측치	1.7%	8.9%	8.2%	—	
	개인특성	연령	29세 이하	2.8%	3.0%	3.4%	3.3%
			30대	27.1%	23.3%	23.6%	21.9%
40대			36.7%	37.0%	34.6%	35.3%	
50대			21.0%	20.6%	21.2%	27.5%	
60대			9.6%	12.3%	13.1%	9.8%	
70세 이상			2.7%	3.7%	4.2%	2.1%	
성별		여	24.3%	27.5%	29.8%	28.9%	
		남	75.7%	72.5%	70.2%	71.1%	
건강상태		(아주) 좋음	12.7%	13.3%	10.9%	10.0%	
		보통	13.4%	20.5%	20.7%	20.1%	
	(아주) 나쁨	73.9%	66.2%	68.4%	69.9%		
가구특성	결혼상태	미혼	5.5%	6.0%	6.5%	6.7%	
		이혼·별거·사별	7.4%	7.9%	10.3%	8.9%	
		유배우자	87.1%	86.2%	83.2%	84.3%	
	가구원수	1~2인 가구	20.6%	20.7%	22.2%	18.9%	
		3~5인 가구	76.5%	76.7%	75.3%	78.6%	
6인 이상 가구	2.9%	2.6%	2.5%	2.5%			
합		100.0%	100.0%	100.0%	100.0%		

주) 각 연도 횡단면 모수가중치(개인가중치)를 사용한 결과임.

그러나 여성 자영업자의 비중은 증가하고(24.3%→28.9%), 남성 자영업자의 비중은 감소하여(75.7%→71.1%), 금재호(2009a)의 성별 자영업 증감추세와 비슷하다. 또한 자영업자 가운데 건강상태가 좋은 사람보다는(평균 11.7%) 나쁜 사람들의 비율이(69.6%) 훨씬 높다. 일반적으로 건강상태가 좋은 사람들의 취업률이 높은 것과 상반되는 결과이다. 한편, 자영업자 가운데 유배우자의 비율이 절대 다수이다(평균 85.2%). 그러나 이혼·사별한 자영업자의 비중도 7.4%에서 8.9%로 높아졌다. 자영업자의 가구원수는 3~5인이 절반을 넘고(평균 76.8%), 1~2인 가구로 자영업에 종사하는 비율도 평균 20.6%에 이른다. 반면, 6인 이상인 가구비율은 평균 2.6%로 낮다.

2) 분석대상 특성별 자영업 순소득

자영업자의 소득분포를 보면, 월 50만 원 이하인 비율이 평균 13.8%로, 자영업자의 약 14%는 영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영업을 통해 연명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월평균 소득이 150만원 미만인 자영업자를 영세자영업자로 볼 때(이승렬, 2009a), 자영업자의 37.9~45.9%가 영세자영업자이다. 최근 지속된 경제 불황으로 상당수의 자영업자는 경영난에 허덕이며(금재호, 2006) 영세한 것을(금재호, 2009a) 본 연구에서도 볼 수 있다. 반면 월 300만원이 넘는 순소득을 얻는 고소득 자영업자의 비율이 25.9%에 이른다. 특히 소득분포의 상하위에 위치한 비율이 모두 증가하였다. 50만 원 이하의 극빈계층도 9.7%에서 12.0%로 높아지지만, 300만 원 이상도 23.4%에서 30.2%로 높아져 자영업 근로소득이 양극화 되고, 나아가 심각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4〉 자영업 근로소득 분포

소득구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월 50만원 이하	9.7%	15.6%	17.7%	12.0%
월 50.1~100만원	14.5%	15.1%	15.3%	12.9%
월100.1~150만원	13.7%	14.7%	12.9%	13.4%
월 150.1~300만원	31.7%	29.4%	28.7%	31.3%
월 300.1만원 이상	23.4%	24.8%	25.1%	30.2%
결측치	7.1%	0.4%	0.3%	0.1%
합	100.0%	100.0%	100.0%	100.0%

주) 각 연도 횡단면 모수가중치(개인가중치)를 사용한 결과임.

분석대상 특성별 자영업 순소득을 살펴보면(〈표 5〉 참고), 초등학교 이하 자영업자의 소득은 연평균 1,073.8만원으로 가장 낮아서 이들 가운데 77.7%는 영세자영업이다. 그러나 대졸(평균 3,739.3만원) 자영업자의 소득은 초등학교 이하 학력의 자영업소득보다 평균 3.5배 이상 높고, 중·고졸과 비교하면 1.4배 높아서 학력별 소득격차가 크다. 반면 대학원 학력자의 평균 소득은 대졸보다 낮아서(평균 3,650.4만원) 자영업 노동시장에서 대학원 프리미엄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산업별 자영업

소득은 건설업·전기가스·수도 산업(평균 4,160.6만원)과 제조업(평균 3,808.3만원)이 가장 높다. 특히 건설업, 전기가스·수도 산업의 연간 순소득은 증가하고 있다(3340.4만원→5079.4만원). 금재호(2009b) 등의 연구에서 제조업, 전기가스·수도산업의 자영업 소득이 높게 나타난 결과와 일치한다. 반면, 서비스산업의 자영업 소득은 평균 2,628.1만원에 불과하다. 특히 개인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비중은 증가하였지만, 2008년 소득은 2005년보다도 10% 감소하였다. 개인서비스업은 생산성은 낮은데 노동공급이 계속 증가하여 ‘바닥으로의 경주’가 되는 것 같아 우려된다. 고용형태와 사업규모에 따른 소득격차도 상당하다. 자영자의 평균소득은 2,014.1만원으로 2005년에도 2223.5만원으로 낮은데 2008년 2085.7만원으로 더 낮아졌다. 반면 고용주는 평균 3,391.4만원으로 자영자와 비교하더라도 2.7배 높고,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더구나 자영자의 47.7%는 월 150만 원 이하의 영세자영업자이지만, 고용주의 69.5%는 월 300만 원 이상의 순소득을 얻는 고소득자로 대조적이다. 이런 격차는 사업체 규모에서도 볼 수 있다. 1~4인 이하와 5인 이상 모두 최근으로 올수록 소득이 증가하고 있지만, 5인 이상 사업장의 자영업 소득이(평균 7508.8만원) 5인 미만 사업장 자영업주(평균 2,455.8만원)보다 3.1배 높다. 5인 이상 사업장 고용주의 77.5%는 고소득자인 반면, 1~4인은 10.8%만 해당된다. 특히, 2007년에는 5인 이상 사업장의 자영업 소득이 1억 1701.4만원인 반면 4인 이하 사업장은 2,398.3만원에 불과하여 4.9배 차이난다. 2007년 자영업자의 소득불평등은 6.9%의 고소득 고용주와 93.1%의 영세자영업자와의 소득격차에 의해 상당부분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사업기간에 따른 자영업 소득은 쌍봉형태를 보인다. 5~10년(평균 3601만원)을 정점으로 소득이 낮아졌다가, 15~20년(평균 3294만원)에 높아진 후 다시 감소한다. 특히 사업기간이 25년 이상이 되면 자영업 소득이 급락하여 1,778.4만원이다. 5~10년 동안 운영한 자영업자 소득의 49.4%에 불과하다. 이들의 60%가 영세자영업자인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소득은 낮지만 그 외 생계를 유지할 대안이 없어서 자영업으로 근근히 살아가는 듯하다. 사업기간이 길수록 사업에 대한 노하우와 경영능력 및 사회적 자본이 늘어서 자영업 소득이 높아지지만, 10년 이상이 되면 더 이상 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자영업자의 연령별 소득은 역 U자이다. 20대 자영업자의 소득은 평균 2075.9만원이지만, 30대부터 높아져 40대(평균 3360만원)에 정점을 이룬 뒤 계속 하락하여, 50대는 2,632만원에 불과하다. 50대가 창업하면, 대부분 경쟁이 심한 생계형 서비스산업에 집중되어 빈곤에 노출될 위험이 큰 것을(김복순, 2011) 볼 수 있다.

〈표 5〉 분석대상 특성별 자영업 근로소득

(단위: 만원)

특 성	평균소득				영세자영업자		고소득자		
	2005	2006	2007	2008	2005	2008	2005	2008	
교육수준	초등학교 이하	1067.32	1059.32	954.46	1214.22	77.7%	73.1%	1.6%	3.4%
	중고졸	2509.36	2579.50	2869.17	2817.06	44.3%	36.9%	18.9%	27.8%
	전문대4년제	3582.11	3356.74	4106.74	3911.77	26.3%	31.7%	35.7%	27.1%
	석·박사	3537.60	3438.19	3753.96	3871.86	30.4%	33.5%	50.7%	37.2%
산업	제조업	3354.43	3765.77	4783.25	3329.72	24.5%	24.2%	35.5%	38.2%
	건설업, 전기가스, 수도사업	3340.38	3586.77	4635.61	5079.44	25.1%	17.3%	32.5%	49.5%
	도소매	2404.44	2142.62	2605.40	2898.84	43.8%	37.2%	21.3%	33.1%
	운수업	2581.92	2242.44	2293.15	2381.48	43.2%	43.6%	37.3%	17.9%
	음식숙박업	2288.29	2699.78	3032.67	3234.67	40.1%	30.8%	18.8%	37.0%
	부동산, 임대업	2861.61	2762.26	2537.00	2785.10	37.1%	32.8%	25.9%	49.2%
	금융, 보험, 사업서비스업	3386.28	2423.68	2822.44	2788.39	36.3%	33.1%	35.4%	33.3%
	교육, 사회복지서비스업	3174.39	3059.16	3322.07	2813.80	38.4%	55.0%	28.6%	24.5%
	오락문화등서비스업	2811.48	2510.82	2671.80	3545.71	38.9%	24.1%	20.3%	39.1%
	기타 개인서비스업	1780.19	1993.93	1639.96	1604.14	66.9%	58.7%	9.1%	10.5%
고용형태	자영자	2223.46	1960.64	1786.56	2085.66	47.7%	47.3%	15.8%	13.9%
	고용주	4620.35	4674.28	6533.81	5737.30	15.0%	15.9%	52.8%	69.5%
사업체	1~4인	2416.04	2363.77	2398.30	2645.02	43.6%	40.7%	19.7%	10.8%
규모	5인 이상	5795.50	5726.07	11701.43	6812.16	10.4%	26.2%	64.5%	77.5%
사업기간	5년 미만	2405.12	2222.81	2308.05	2789.83	43.3%	44.5%	18.7%	26.0%
	5~10년 미만	3027.35	3223.95	4737.50	3415.68	34.1%	29.0%	31.5%	41.2%
	10년~15년 미만	2957.65	2784.14	3119.47	2131.06	42.2%	36.8%	32.2%	24.5%
	15~20년 미만	3042.74	3484.59	3166.63	3482.05	42.2%	29.2%	26.6%	36.8%
	20~25년 미만	2654.06	2952.73	2592.79	3658.34	51.6%	31.1%	17.2%	40.0%
	25년 이상	1598.11	1613.19	1692.53	2209.63	59.75	49.5%	7.4%	17.0%
연령	29세 이하	2644.87	2421.26	1549.43	1688.08	38.3%	78.9%	10.9%	8.9%
	30대	2893.65	3057.77	3450.89	3386.85	33.6%	30.5%	25.9%	33.3%
	40대	3165.13	3006.74	3652.09	3615.49	30.9%	27.8%	31.3%	35.2%
	50대	2422.97	2341.52	3071.63	2691.81	47.1%	41.2%	19.0%	33.2%
	60대	1260.65	1650.31	1435.22	1737.17	74.0%	61.1%	4.7%	9.1%
	70세 이상	864.61	786.842	609.73	1200.43	94.7%	89.7%	3.0%	7.3%
성별	여	1666.79	1683.05	1514.76	1757.70	62.6%	64.8%	8.7%	12.5%
	남	2921.74	2908.40	3536.27	3443.59	34.8%	27.6%	28.1%	37.5%
건강상태	(아주)나쁨	1763.59	1391.85	1185.86	1904.76	63.3%	54.9%	12.1%	21.6%
	보통	2321.03	2327.01	2929.15	2316.26	50.3%	42.4%	14.2%	26.1%
	(아주)좋음	2876.00	2939.00	3229.77	3259.47	35.3%	34.8%	27.0%	32.7%
결혼상태	미혼	2324.81	2342.44	1833.55	2702.15	42.3%	55.1%	16.1%	24.8%
	이혼별거사별	1207.23	1249.41	1242.95	1908.76	70.1%	50.3%	5.5%	11.3%
	유배우자	2816.07	2725.33	3237.69	3046.32	38.2%	35.8%	25.3%	32.7%
가구원수	1~2인 가구	1845.33	1678.68	1834.10	1856.67	57.2%	54.3%	13.2%	13.7%
	3~5인 가구	2894.36	2843.56	3258.79	3272.46	36.1%	34.1%	26.9%	34.5%
	6인 이상 가구	2280.76	2849.81	3469.96	2593.77	51.4%	51.5%	2.3%	22.1%

주) 각 연도 횡단면 모수가중치(개인가중치)를 사용한 결과임.

자영업 평균 근로소득은 2008년을 기준으로(2008=100) 통계청의 소비자물가지수로 조정한 금액임.

특히 60대 자영업자의 소득은 평균 1,520.8만원, 70대 이상은 865.4만원이다. 60~70대 자영업자의 소득은 최저임금에도 훨씬 못 미치는 극빈계층이다. 실제 50대의 47.1%, 60대의 74.0%, 70대 이상의 94.7%가 영세자영업자이다. 성별 자영업 소득을 보면 여성의 자영업 소득은 평균 1,655.6만원, 남성은 3,202.5만원으로 남성의 51.7%에 불과하다. 선행연구에서 61.3%(성지미, 2011)나 62%(금재호, 2009b)로 나타난 것보다도 더 낮다. 여성 자영업자의 65%가 영세자영업자인 것도 이들의 취약성을 말해준다. 건강상태에 따른 소득을 보면, 건강상태가 나쁜 사람(평균 1,561.5만원)보다 좋은 사람의 자영업 소득(3,076.1만원)이 약 2배 높다. 건강상태가 나빠서 자영업을 하거나, 건강상태가 안 좋아서 사업에 매진하지 못하여 소득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결혼상태에 따른 자영업 소득을 보면, 유배우자(평균 2,956.4만원)가 가장 높고 그 다음이 미혼의 자영업자이다(평균 2,300.7만원). 그러나 무배우자인 자영업 소득은 평균 1,402.1만원에 불과하다. 이들의 50~70%는 영세자영업자로, 이혼이나 사별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자영업을 선택하여 생계를 유지하지만, 뚜렷한 기술이나 사회경험이 부족해서 소득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가족규모에 따른 자영업 소득은 1~2인 가구는 평균 1,803.7만원으로 이들의 54~57%가 영세자영업자이다. 그러나 3~5인 가족은 평균 3,067.3만원으로 높고, 그 다음이 6인 이상 가구이다(2,798.6만원). 가족 구성원이 많으면, 무급노동이나 가사지원 등으로 자영업 소득이 높을 수 있지만, 가족구성원 수와 자영업 소득이 정비례하지는 않다.

3) 자영업 근로소득의 불평등

전체 근로자의 소득불평등을 지니계수로 측정하면 평균 0.419이다. 세부집단으로 보면, 임금근로자의 소득불평등은 평균 0.398이고 자영업자는 평균 0.486으로 자영업자의 소득불평등이 더 크다. 대수편차평균(I_0)으로 측정하면 임금근로자의 소득불평등은 평균 0.307이지만 자영업자는 0.481로, 지니계수로 측정한 소득불평등 차이보다 더 크다. I_0 추세에 있어서도 임금근로자의 불평등은 0.37(2005년)에서 0.41(2008년)로 증가하지만, 자영업 소득의 불평등은 출발선 자체가 임금근로자보다 높은 0.42에서 시작되어 0.49로 악화된다. 자영업 근로소득의 불평등이 크고, 임금근로자와 비교하더라도 소득이 불균등하며 악화되는 정도도 더 큰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전체 근로자의 소득불평등 증가(0.38→0.43)는 자영업 소득불평등 증가에 더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고용형태 가운데 자영업자의 소득불평등이 가장 크고, 임금근로자와 비교해도 자영업자의 불평등이 더 크게 나타난 Jenkins(1995)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그러나 불평등지수는 소득불균형의 전체적인 지표일 뿐, 이들 지표의 추세만으로는 어떤 계층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저하되었는지 알 수 없다(정진호·최강식, 2001). 이에 소득분위수 배율과 소득분위별 소득점유율을 살펴보았다(〈표 6〉참고). 먼저 소득분위수 배율을 보면, 자영업 소득은 불평등이 높을 뿐 아니라 양극화된 것을 알 수 있다. 90분위와 50분위와의 차이는 2~3배이지만, 자영업 최상위분위와 최하위분위의 소득격차는 2005년에는 8.6배로 상당히 큰데, 2008년에는 12.0배로 더 커졌다. 고소득 자영업자의 경제적 지위는 더 높아지지만, 저소득 자영업자의 열악한 경제상황은 더 악화되고

있다. 임금근로자 최상위 분위와 최하위분위의 소득격차도 같은 시기 6.2배에서 9.5배로 커지지만, 자영업자는 소득격차가 더 심각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6〉 소득불평등 변화

불평등도	전체				임금근로자				자영업자			
	2005	2006	2007	2008	2005	2006	2007	2008	2005	2006	2007	2008
불평등 지수												
지니계수	0.384	0.418	0.443	0.430	0.371	0.398	0.412	0.412	0.424	0.488	0.545	0.487
대수편차평균(I_n)	0.274	0.338	0.391	0.367	0.251	0.301	0.337	0.339	0.360	0.488	0.606	0.468
소득분위수배율												
P90/10	6.94	8.52	10.00	9.80	6.18	7.73	9.38	9.49	8.60	14.91	15.34	12.00
P90/50	2.50	2.56	2.67	2.64	2.33	2.50	2.56	2.61	2.69	3.11	3.22	2.78
P10/50	0.36	0.30	0.27	0.27	0.38	0.32	0.27	0.28	0.31	0.21	0.21	0.23
P75/25	2.78	3.02	3.15	2.96	2.59	2.98	3.01	2.86	2.70	3.64	3.96	3.34
분위별 소득점유율												
10분위	27.74	29.65	30.88	30.35	26.53	26.86	28.14	28.34	31.15	38.02	43.00	35.72
9분위	17.15	17.51	17.87	17.38	16.95	17.77	17.54	17.35	15.18	16.19	16.29	18.58
8분위	12.12	13.36	13.06	13.13	12.43	13.49	13.41	13.41	10.80	15.35	11.78	12.60
7분위	11.60	10.57	10.29	10.40	11.38	10.71	10.70	10.56	11.20	10.07	9.04	9.62
6분위	6.06	7.345	7.62	8.40	5.79	7.79	8.14	8.60	12.37	5.81	7.26	8.22
5분위	9.54	8.49	7.54	6.97	10.00	8.29	7.54	7.08	7.82	9.13	5.34	6.50
4분위	4.65	5.45	5.34	5.54	5.04	5.71	5.85	5.74	3.18	4.82	4.10	4.51
3분위	6.54	4.24	4.08	4.35	5.40	4.53	4.43	4.58	6.69	3.10	2.47	3.90
2분위	3.14	3.21	2.64	2.90	4.76	3.32	3.01	3.12	2.46	2.00	1.91	2.14
1분위	1.46	0.18	0.69	0.59	1.73	1.52	1.25	1.24	-0.84	-4.49	-1.17	-1.78

주) 각 연도 횡단면 모수가중치(개인가중치)를 사용한 결과임.

소득점유율을 보더라도, 최상위 분위(소득 10분위)의 자영업자는 전체 자영업 소득의 31.2~43.0%를 소유하고 있다. 고소득층이라고 볼 수 있는 소득 8~10분위의 소득점유율은 57.1~71.1%이다. 상위 계층이 자영업 소득의 상당부분(평균 66.2%)을 소유하고 있다. 반면, 저소득층인 소득 1~3분위의 소득점유율은 평균 4.1%에 불과하여, 자영업 소득의 심각한 양극화를 말해준다. 또한 소득 1~5분위의 소득점유율도 평균 15.4%에 불과하여 자영업 소득이 고소득자에게 편중된 것을 볼 수 있다. 임금근로자 역시 소득점유율의 차이가 커서, 고소득 임금근로자의 평균 소득점유율이 58.1%이고, 저소득층의 평균 소득점유율은 9.7%에 불과하지만, 자영업 소득이 더 불균등하게 분배되어있다.

4) 자영업 근로소득의 불평등 요인

본 절은 대수편차평균을 통해 자영업 소득의 불평등을 분해하였다(〈표 7〉 참고). 모든 특성에 있어서 집단간 불평등보다 집단내 불평등의 기여도가 훨씬 크다. 집단내 불평등이 전체 불평등의 상당부

분을 설명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집단간 불평등보다 집단내 소득불평등이 더 크게 나타난 정진호·최강식(2001), 여유진 외(2005), Mookherjee and Shorrocks(1982), Jenkins(1995) 등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같은 산업과 직종 내에서도 이질성이 크고(Baron and Bielby, 1980; Sakamoto, 1988 재인용), 종업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소득편차가 1~4인의 피용인을 둔 고용주의 소득편차보다 크듯이(금재호, 2009b), 같은 특성 내에서도 자영업자의 이질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연령집단내 불평등을 보더라도, 30대 후반까지는 나이가 많을수록 소득편차가 감소하지만, 40대부터는 악화되고(금재호, 2009b), 50대는 30대보다 저소득 비중이 높지만, 고소득 비중도 높아서 고연령일수록 소득의 편차가 커지기(성지미·안주엽, 2003; 홍성희, 2005 재인용) 때문일 것이다. 또한 자영업 소득불평등은 요인들의 결합효과 즉, 저학력이면서 소규모 자영업을 운영하는 고연령층 등의 조합의 영향도 상당한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우리나라 자영업 소득불평등의 주된 요인은 고용형태, 교육수준, 연령, 그리고 사업규모로 볼 수 있다. 첫째, 고용형태에 따른 집단간 불평등이 평균 22.0%이고 특히 2007년에는 고용형태에 따른 불평등 기여도가 29.5%에 이른다. 고용주와 자영업자 사이의 큰 소득격차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Mookherjee and Shorrocks(1982), Jenkins(1995)의 선행연구에서 집단간 불평등이 20%를 넘지 않았던 것과 비교하더라도 고용형태에 따른 집단간 불평등이 크다. 임금근로자의 경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소득격차가 크듯이, 자영업자는 자영업자와 고용주간의 소득불평등이 큰 것을 말해준다. 외국에서 직업이 자영업 소득불평등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는데(Parker, 1999) 우리나라는 산업보다는 고용형태에 따른 불평등이 가장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더구나 고용형태에 따른 집단간 불평등이 불과 3년 만에 2배 이상 악화되어(12.8%→25.9%), 앞으로도 자영업 소득불평등의 상당부분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교육수준에 따른 불평등 기여도도 15.2%로, 학력에 따른 자영업 소득불평등이 크다. 자영업자 가운데는 생산성이 높고 인적자본을 많이 축적한 고능력자군도 있지만, 대부분은 경기부진으로 임금근로에서 밀려나 생계수단으로 자영업을 비자발적으로 시작하거나, 생산성이 낮은 저능력자군이어서(금재호·조준모, 2000; 전병유, 2003; 금재호, 2006; 김기승·조준모, 2009) 교육효과가 큰 것으로 보인다.

셋째, 연령집단간 불평등이 전체 불평등의 12.5%(평균)를 설명한다. 자영업소득 불평등의 12.5%는 연령효과(age effect)로 볼 수 있다. 연령효과가 전체 소득불평등의 16~3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난 Mookherjee and Shorrocks(1982)의 집단간 소득불평등도보다는 낮지만, 자영업 소득불평등의 주요 요인이라는 점에서 간과할 수 없다. 50대 이상 자영업자가 약 37%를 차지하지만, 중고령자 특히 60대 이상 자영업자의 소득이 낮기 때문일 것이다. 앞으로 고령화, 조기퇴직 등으로 50대 이상이 자영업 노동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늘면, 소득불평등이 더 악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넷째, 사업규모에 따른 불평등 기여도는 평균 11.1%로 2007년에는 16.3%에 이르렀다. 최근 외식업체에 법인과 프랜차이즈 등 기업화된 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기(창업경영신문, 2011. 5. 23)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기업형 자영업이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상권을 잠식하면, 사업규모에 따른 소득불평등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그 외에도 산업별 자영업 소득불평등 기여도는 평균 7.1%이다. 그러나 2005년에는 영향력이 4.5%였으나 2008년 11.1%로 급상승하였다. 건설업, 전기가스·수도사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의 소득은 더 높아지지만, 소비자서비스업의 소득은 더 낮아

지는 등 산업에 따른 소득격차가 갈수록 더 커지기 때문일 것이다. 향후 소비자서비스업의 비중이 더 커지면 소득불평등이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다. 한편, 성별의 자영업 소득불평등 기여도는 평균 8.8%, 건강상태는 6.2%, 가구원수 5.3%, 혼인상태 4.9%, 사업기간은 4.3%로, 상대적인 관점에서 주된 불평등 요인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표 7〉 자영업자 특성별 소득불평등 요인분해 결과

요인	분해	2005		2006		2007		2008	
		I_o	비율	I_o	비율	I_o	비율	I_o	비율
교육수준	집단내불평등	0.307	85.3%	0.411	84.2%	0.507	83.7%	0.402	85.9%
	집단간불평등	0.053	14.7%	0.077	15.8%	0.099	16.3%	0.066	14.1%
	전체	0.360	100.0%	0.488	100.0%	0.606	100.0%	0.468	100.0%
산업	집단내불평등	0.342	95.5%	0.468	95.9%	0.553	91.3%	0.416	88.9%
	집단간불평등	0.016	4.5%	0.02	4.1%	0.053	8.7%	0.052	11.1%
	전체	0.358	100.0%	0.488	100.0%	0.606	100.0%	0.468	100.0%
고용형태	집단내불평등	0.314	87.2%	0.391	80.1%	0.427	70.5%	0.347	74.1%
	집단간불평등	0.046	12.8%	0.097	19.9%	0.179	29.5%	0.121	25.9%
	전체	0.360	100.0%	0.488	100.0%	0.606	100.0%	0.468	100.0%
사업규모	집단내불평등	0.331	91.9%	0.439	90.0%	0.507	83.7%	0.422	90.2%
	집단간불평등	0.029	8.1%	0.049	10.0%	0.099	16.3%	0.046	9.8%
	전체	0.360	100.0%	0.488	100.0%	0.606	100.0%	0.468	100.0%
사업기간	집단내불평등	0.350	97.0%	0.468	95.9%	0.542	92.8%	0.458	97.9%
	집단간불평등	0.011	3.0%	0.023	4.7%	0.042	7.2%	0.01	2.1%
	전체	0.361	100.0%	0.488	100.6%	0.584	100.0%	0.468	100.0%
연령집단	집단내불평등	0.319	88.6%	0.43	88.1%	0.504	83.2%	0.421	90.0%
	집단간불평등	0.041	11.4%	0.058	11.9%	0.102	16.8%	0.047	10.0%
	전체	0.360	100.0%	0.488	100.0%	0.606	100.0%	0.468	100.0%
성별	집단내불평등	0.338	93.9%	0.454	93.0%	0.536	88.4%	0.419	89.5%
	집단간불평등	0.022	6.1%	0.034	7.0%	0.07	11.6%	0.049	10.5%
	전체	0.36	100.0%	0.488	100.0%	0.606	100.0%	0.468	100.0%
건강상태	집단내불평등	0.344	95.6%	0.446	91.4%	0.557	91.9%	0.450	96.2%
	집단간불평등	0.016	4.4%	0.042	8.6%	0.049	8.1%	0.018	3.8%
	전체	0.360	100.0%	0.488	100.0%	0.606	100.0%	0.468	100.0%
혼인상태	집단내불평등	0.344	95.6%	0.46	94.3%	0.563	92.9%	0.457	97.6%
	집단간불평등	0.016	4.4%	0.028	5.7%	0.043	7.1%	0.011	2.4%
	전체	0.360	100.0%	0.488	100.0%	0.606	100.0%	0.468	100.0%
가구원수	집단내불평등	0.347	96.4%	0.458	93.9%	0.576	95.0%	0.438	93.6%
	집단간불평등	0.013	3.6%	0.030	6.1%	0.030	5.0%	0.030	6.4%
	전체	0.360	100.0%	0.488	100.0%	0.606	100.0%	0.468	100.0%

주) 각 연도 횡단면 모수가중치(개인가중치)를 사용한 결과임.

요인별 전체 불평등지수가 다소 다른 것은 요인에 따라 결측치와 소득이 0인 사례수가 다르기 때문임.

5) 자영업 근로소득 불평등의 추세분해

본 절에서는 자영업 소득불평등도 변화를 동태적으로 분해하였다. 대수편차평균으로 측정한 자영업 소득불평등도는 2005년 0.3602에서 2008년 0.4679로 0.1077 증가하였다. 이러한 변화를 자영업 소득불평등의 주된 요인으로 나타난 고용형태와 교육수준, 연령집단, 사업체 규모에 대해 순효과(*A*항), 집단 구성의 변화효과(*B*항과 *C*항), 집단간 상대소득변화효과(*D*항)로 분해하였다.

〈표 8〉 요인별 자영업 근로소득 불평등도 추세분해(2005년 vs 2008년)

		전체변화	집단구성의 변화효과			집단간
			순효과	<i>A</i> 항	<i>B</i> 항	<i>C</i> 항
			<i>A</i> 항	<i>B</i> 항	<i>C</i> 항	<i>D</i> 항
고용형태	절대적기여도	0.1077	0.0350	-0.0019	0.0112	0.634
	상대적기여도	100.0%	32.5%	-1.7%	10.4%	58.9%
교육수준	절대적기여도	0.1077	0.0917	0.0030	0.0080	0.0049
	상대적기여도	100.0%	85.2%	2.8%	7.5%	4.6%
연령집단	절대적기여도	0.1077	0.0868	0.0141	0.0117	-0.0050
	상대적기여도	100.0%	80.6%	13.1%	10.9%	-4.6%
사업체규모	절대적기여도	0.1077	0.0894	0.0010	-0.0051	0.0224
	상대적기여도	100.0%	83.0%	0.9%	-4.8%	20.8%

주) 각 연도 횡단면 모수가중치(개인가중치)를 사용한 결과임.

분석결과, 고용형태에 따른 불평등 변화는 고용형태의 순효과(*A*항) 즉, 고용주/자영자내의 불평등 변화효과가 32.5%이다(〈표 8〉 참고). 고용주 내에서의 소득불평등은 커졌지만(0.248→0.348), 자영자 내에서의 소득불평등이 다소 높아졌을(0.327→0.348, 〈표 9〉 참고) 뿐이라서 상대적으로 순효과가 낮은 것으로 보인다. 반면 집단간 상대소득변화효과(*D*항)가 59%에 이른다. 고용형태에 따른 고용주/자영자의 상대소득 변화가 총불평등 변화에 기여하는 바가 가장 크다. 자영자의 상대소득은 낮은 상태에서 더 낮아진 반면, 고용주의 상대소득은 높은 상태에서 더 높아졌기 때문일 것이다. 한편 자영자는 감소하고, 고용주 비중은 증가하였기 때문에 집단구성의 변화효과는 8.7%이다.

〈표 9〉 자영업 근로소득 불평등 요인분해(2005년 vs 2008년)

요인	연도	구분	전체 불평등	집단 k 의 인구비중	집단내불평등	집단간불평등	집단별 상대소득	
					집단 k 내의 불평등지표	집단 k 의 평균소득대비 전체평균소득 대수치		
고용 형태	2005	자영자		0.8328	0.3273	0.1721	0.8419	
		고용주		0.1672	0.2481	-0.5810	1.7878	
		전체	0.3602	0.3140	0.04623			
	2008	자영자		0.7879	0.3480	0.3540	0.7019	
		고용주		0.2122	0.3438	-0.7454	2.1072	
		전체	0.4679	0.3471	0.1208			
교육 수준	2005	초등이하		0.1262	0.4540	0.8916	0.4100	
		중고졸		0.5867	0.2837	0.0472	0.9539	
		(전문)대졸		0.2646	0.2884	-0.3038	1.3550	
		대학원		0.0226	0.3091	-0.2878	1.3335	
		전체	0.3602	0.5068	0.1993			
		2008	초등이하		0.1535	0.4363	0.8916	0.4020
	중고졸		0.5654	0.3709	0.0472	0.9644		
	(전문)대졸		0.2595	0.4567	-0.3038	1.4077		
	대학원		0.0216	0.3003	-0.2878	1.2820		
	전체	0.4679	0.4017	0.0662				
	연령 집단	2005	29세 이하		0.0256	0.2177	0.0157	0.9844
			30대		0.2636	0.2525	-0.0939	1.0984
40대				0.3631	0.2861	-0.1648	1.1792	
50대				0.2041	0.3768	0.0796	0.9235	
60대				0.1118	0.4231	0.6536	0.5202	
70대이상				0.0318	0.6141	1.1131	0.3285	
전체		0.3602	0.31974	0.0405				
2008		29세 이하		0.0237	0.5470	0.0157	0.6329	
		30대		0.2091	0.3992	-0.0939	1.1758	
		40대		0.3121	0.3637	-0.1648	1.2332	
		50대		0.2554	0.4394	0.0796	0.9693	
		60대		0.1473	0.4454	0.6536	0.5836	
	70대이상		0.0525	0.6261	1.1131	0.3975		
전체	0.4679	0.4206	0.0473					

주) 각 연도 횡단면 모수가중치(개인가중치)를 사용한 결과임.

둘째 교육수준에 따른 불평등 변화는 교육수준의 순효과 즉, 교육 집단내 불평등 변화효과는 85.2%로, 자영업 소득불평등 변화의 대부분을 설명한다(〈표 8〉 참고). 초등이하와 대학원 학력을 지닌 자영업자 내에서의 소득불평등은 감소하지만, 중고졸(0.284→0.371) 특히 대학교 학력(0.288→0.457)내에서의 불평등이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집단구성의 변화(B항과 C항)도 불평등 증가의 10.3% 기여한다. 소득수준이 낮은 저학력 자영업자 비율이 더 높아지고, 대졸 이상의 비율은 감소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집단간 상대소득변화도 불평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4.6%). 초등학교 이하의 집단별 상대소득은 더 낮아지고, 대졸이상의 소득은 더 높아져, 교육수준에 따른 상대소득의 변화가 불평등악화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연령집단에서도 순효과가 가장

크다. 연령 집단내 불평등은 2008년 모든 연령계층에서 더 높아져(〈표 9〉), 연령 집단내 불평등변화, 즉 순효과가 전체 소득불평등 증가의 80.6%를 설명한다(〈표 8〉 참고). 그러나 집단구성의 변화효과도 24.0%에 이른다. 2005년과 비교하면 20~40대의 자영업 비중은 감소하고 50대 이상의 자영업 비율이 높아졌다. 이와 같은 집단 구성의 변화가 자영업소득 불평등을 악화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집단간 상대소득변화효과는 불평등을 다소 완화한다(-4.6%). 30~40대 자영업자의 상대소득이 높아졌지만, 50대이상 자영업자의 상대소득이 약간 높아졌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50대 이상 중고령자들의 집단내 불평등은 더 악화되고 여전히 소득이 낮기 때문에 연령집단간 소득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넷째, 사업체 규모에 따른 집단간 불평등 변화는 사업체 규모의 순효과가 불평등 증가의 대부분을 설명하지만(83.0%), 집단간 상대소득의 변화효과도 20.8%이다.

5. 결론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특성은 자영업 부문의 비중이 크다는 것이다(류재우, 2003). 정부차원에서도 자영업은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강력한 원동력으로 인식된다(김기승·조준모, 2006). 그러나 자영업의 소득불평등이 크다. 자영업 불평등 악화는 전체 불평등 악화에 영향을 미치고 빈곤을 양산하기 때문에(Kimhi, 2010) 준비되지 않은 무분별한 자영업 진출은 양극화 현상을 유발하고 오히려 경제의 체질을 약화시킬 수 있다. 그럼에도 자영업 소득불평등에 초점을 두고 분석한 논문은 거의 없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1~4차 자료를 통해 대수편차평균으로 자영업 근로소득의 불평등을 측정하고 불평등 요인과 변화를 분해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우리나라 자영업 노동시장은 저학력·고연령자, 건강상태가 나쁜 사람 등의 한계노동자 중심으로 편성되었다. 또한 최근으로 올수록 개인서비스업, 중고령자, 여성, 이혼한 사람 등 인적 자본이 취약한 사람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소득은 낮은 상태에서 더 낮아지고 있다. 경기불황으로 수요는 정체되거나 감소되었는데, 뚜렷한 기술이 없는 취약계층의 자영업 진출이 증가하여 과잉공급으로 인한 출혈경쟁으로 소득이 낮아져 바닥으로의 경주가 되는 듯하다. 실제 자영업 소득을 보면, 자영업자의 42%가 영세자영업자이고 특히 50만원 미만의 비중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수많은 자영업 종사자들이 경영난과 도산의 위협에 놓여 있는 것을(내일신문, 2011. 8.11) 볼 때, 자영업이 안정된 고용을 보장하거나 디딤돌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빈곤의 나락으로 빠지는 첩경이 될 수도 있음을 말해준다. 반면 월 300만 원 이상 소득자도 23.4%에서 30.2%로 높아지고 있어서 자영업 소득의 양극화가 심각해지고 있다. 둘째, 대수편차평균으로 측정한 자영업 근로소득의 불평등은 2005년 0.36에서 2008년 0.47로 더 높아졌다. 임금근로자와 비교하더라도 자영업의 소득불평등이 커서 전체 소득불평등 악화에 더 많이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영업 최상위 분위와 최하위 분위의 소득격차가 2005년 31.2배에서 2007년 43.0배로 더 커졌다. 자영업 고소득층이 자영업 전체 소득의 66.2%를 소유한 반면, 1~3분위는 4.1%에 불과하여 자영업 소득 불평등이 클 뿐만 아니라, 양극화 된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자영업 소득불평등의 주요 요인은 고용형태, 교육수준, 연령집단, 사업규모이

며, 산업의 불평등 기여도 역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자영업 소득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고용주/자영자, 교육수준, 연령집단, 사업규모, 산업간 소득분배를 완화하는데 우선순위를 두고 접근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고용형태에 따른 자영업 소득불평등 악화는 주로 집단간 상대소득의 변화로 인해 나타났다. 따라서 단순히 창업을 지원하기 보다는 이미 사업을 운영중인 자영자에게도 정책적으로 개입하여 이들의 소득불안정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한편 교육수준과 연령집단, 사업체 규모에 따른 불평등 변화는 집단내 불평등 변화 즉 순효과가 기여하는 정도가 가장 크지만, 집단구성의 변화도 불평등 악화에 기여하고 있다. 연령집단을 보면 자영업자 가운데 20~40대 비중은 줄고 50대 이상의 비율이 높아졌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자영업 소득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중고령자들이 노동시장에서 고용대안을 찾지 못해 자영업에 진출하도록 방치하기 보다는, 안정된 임금근로 일자리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한 자영업 육성정책이 과연 최선의 길인지 재고하고, 정부 차원에서 주기적으로 노동수요를 조사하여 노동수요에 맞는 전문화된 창업훈련을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영세자영업으로 전락하지 않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이미 창업한 사람들 특히 영세자영업자와 저숙련·고령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도 절실하다.

참고문헌

- 금재호. 2003. “자영업의 생존과 소멸”. 『자영업노동시장의 현상과 과제』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197-210.
- 금재호. 2009a. “자영업 고용구조의 변화와 추이”. 『자영업노동시장 연구(I)-자영업의 변화추이와 특성』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7-61.
- 금재호. 2009b. “자영업주의 매출과 소득”. 『자영업 노동시장 연구(I)-자영업의 변화추이와 특성』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143-179.
- 금재호. 2009c. “자영업 이후의 노동시장 성과”. 『자영업 노동시장 연구(I)-자영업의 변화추이와 특성』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286-314.
- 김기승·조준모. 2006. “자영업에 관한 유인가설과 구축가설에 대한 검증: 월간 단기패널을 이용한 실증 분석”. 국제경제연구, 12(2), 163-189.
- 김기승·조준모. 2009. “고용형태에 따른 자영업 진출 결정요인 분석”. 『자영업 노동시장 연구(I)』 180-205. 한국노동연구원.
- 김복순. 2011. “자영업 노동시장의 최근 변화”. 월간노동리뷰, 10월호, 7-18.
- 김주훈·안상훈·이재형. 2007.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과제”. KDI 정책포럼, 187(2007-15), 1-15. 한국개발연구원.
- 류재우. 2003. “자영업의 소득과 선택”. 『자영업 노동시장의 현상과 과제』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164-196.
- 반정호. 2011. “자영자 가구의 소득실태와 변화: 1990~2010년”. 월간노동리뷰, 10월호, 19-32.
- 성지미·안주엽. 2004. “자영업과 가교일자리”. 노동경제논집, 27(2), 1-27.
- 성지미. 2011. “자영업 선택과 성과 간의 관계: 경력 초기 자영업 선택의 장기효과”. 노동정책연구, 11(3), 53-80.
- 안동환. 2004. “도시근로자가구와 농가의 소득불평등도 비교분석: 엔트로피지수의 그룹별·소득원별 분

- 해” . 농업경제연구. 45(1). 21-46.
- 여유진·김미곤·김태완·양시현·최현수. 2005. 『빈곤과 불평등의 동향 및 요인분해』.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유향근. 2004. “지니계수, 상대적 지니계수 및 타일의 엔트로피지수를 이용한 소득불평등 분석” . 응용경제. 6(3). 5-30.
- 이승렬. 2009a. “자영업자에 대한 정의” . 『자영업노동시장 연구(Ⅱ) - 노동시장정책과 사회보장』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9-24.
- 이승렬. 2009b. “자영업자의 종사상 지위 변동과 소득결정” . 『자영업노동시장 연구(Ⅱ) - 노동시장정책과 사회보장』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117-142.
- 이승렬. 2009c. “정책검토와 개선방향” . 『자영업노동시장 연구(Ⅱ) - 노동시장정책과 사회보장』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224-247.
- 전병유. 2003. “자영업 선택의 결정요인” . 『자영업 노동시장의 현상과 과제』. 134-163. 한국노동연구원
- 정진호·최강식. 2001. “노동자 가구소득 불평등의 요인별 분해” . 경제학연구. 49(3). 39-64.
- 최강식·정진옥·정진화. 2005. “자영업 부문의 소득분포 및 소득결정요인: 분위회귀분석” . 노동경제논집. 28(1). 135-156.
- 최강식·정진화. 2007. “성별 소득격차의 분해: 자영업과 임금근로의 비교” . 경제학연구. 55(4). 217-241.
- 홍성희. 2005. “소규모자영업분야의 경제적 성과와 직업만족도” .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3). 115-126.
- 소상공인진흥원 홈페이지. <http://www.seda.or.kr>
- 내일신문. 2011. 08. 11. “이 땅에 자영업자로 산다는 것”
- 동아일보. 2011. 11. 17. “50대 이상 자영업자 사상 최고”
- 창업경영신문. 2011. 05. 23. “자영업시장, 승자독식구조”
- 통계청. KOSIS 소비자물가조사. <http://kosis.kr/>
- Boyd, Robert L. 1991. “Inequality in the Earnings of Self-Employed African and Asian Americans” . Sociological Perspectives. 34(4). 447-472.
- Heyns, Barbara. 2005. “Emerging Inequalities in Central and Eastern Europe” . Annual Review of Sociology. 31. 163-197.
- Jenkins, Stephen P. 1995. “Accounting for Inequality Trends: Decomposition Analyses for the UK, 1971-1986” . Economica. 62(245). 139-191.
- Kimhi, Ayal. 2010. “Entrepreneurship and Income Inequality in Southern Ethiopia” . Small Business Economic. 34. 81-91.
- Levy, Frank and Richard J. Murnane. 1992. “U.S. Earning Levels and Earnings Inequality: A Review of Recent Trends and Proposed Explanations” .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Vol 30(3). 1333-1381.
- Mookherjee, Dilip and Anthony Shorrocks. 1982. “A Decomposition Analysis of the Trend in UK Income Inequality” . Economic Journal. 92(December). 886-902.
- Parker, Simon C.. 1997. “The Distribution of Self-Employment income in the United Kingdom, 1976-1991” . The Economic Journal. 107. 455-466.
- Parker, Simon C.. 1999. “The Inequality of Employment and Self-Employment Incomes: A Decomposition Analysis for the U.K.” . Review of Income and Wealth. 45(2). 263-274.

Sakamoto, Arthur. 1988. "Labor Market Structure, Human Capital, and Earnings Inequality in Metropolitan Areas" . *Social Forces*. 67(1). 86-107.

Inequality Factors and Trend in the Earnings of Self-Employed

Ji, Eun-Jeong

(Korea Labor Force Development Institute for the aged)

Self-employment rate is high in Korean labor market, while the income gap within self-employed is also high. Although, there are very few studies that addressed on the income inequality of self-employed. Thus, this study has measured the earnings inequality of self-employed by generalized entropy indices and decomposed inequality factor and trend. The empirical study is based on Korea Welfare Panel Study wave 1~4. The main result from this analysis is summarized in three points. Firstly, earnings inequality of self-employed is severely high and the earnings polarization within self-employed has become more serious in Korea. Secondly, this study provides the evidence that the main factor of earnings inequality of self-employed is the status of self-employment, education level, age group, workplace scale and industry. Thirdly, the contribution of relative changes in the incomes of the status of self-employment is the largest to the inequality trend. In terms of education level, age group and industry, the increase of inequality within group(pure effect) mainly attributes to the rise of earnings inequality of self-employed and the change effect of group composition contributes to deterioration of inequality.

Key words: Self-Employment, Inequality, Generalized Entropy indices, Mean Logarithmic Deviation(MLD), Trend, Decomposition

[논문 접수일 : 11. 12. 05, 심사일 : 11. 12. 27, 게재 확정일 : 12. 01. 13]